

로마서 1 강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감기가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괴롭히는지 저 워싱턴에 가도 감기 환자 천지고 감기 하나만 와도 그냥 사람들이 곰짝 못하는 그냥 연약한 때가 됐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 공부하기 전에 로마서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 요한 웨슬레, 그분이 10 년 동안은, 그분은 캠브리지 나오고 옥스퍼드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미국에 와서 선교사 생활을 10 년을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선교사 10 년을 했는데도 구원을 못받았다구요. 그 요한 웨슬레가 그런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배가 파선되서 죽을뻔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배가 침몰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며 기뻐할 때 그가 영금 영금 기어가지고 당신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찬송가가 나오냐고? 아니 배가 가라앉으면 천국 갈텐데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가 나는 선교사 10 년을 했는데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데 이 분들은 어떤 믿음일까? 충격을 받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서 겸손하게 어느 성경 공부 클래스에 들어 갔는데 마치 로마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를 듣다가 이분에게 능력이 임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자가 된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 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이 로마서는 성경 말씀에서 뼈대같은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믿음으로 받아 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안에 역사 하면 엄청난 능력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입니다. Of God,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 능력,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가지 있잖아요. 구원, 진리, 복음, 또 사람 그렇죠?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께 속한거, 의, 믿음, 진리, 구원, 복음, 능력, 사람, 진노 이렇게 8 가지 인가요? 8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 장은 이방인의 죄입니다. 2 장은 유대인의 죄입니다. 결국 다 죄인이라는 걸 볼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내가 죽는다 내가 왜 죽을까?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기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결국에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 잔치집에 가지말고...소련에서 선교사 두분이 알타마에서 서로 싸웠대요. 한분은 초상집에 가자 그러고 같은 시간인데 한분은 잔치집에 가자고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둘중의 하나 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초상집을 택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의 죄.

이방인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이 아닌 어떤 민족,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예요. 그리고 이방인은 구약시대에 이방인은 쉽게 얘기해서 개같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죄인, 이방인이라고 하면 꼭 죄인이 따라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이 있어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그랬지만 이방인들은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잖아요? 죄를 짓고서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용서 받을 길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무슨 희생제를 드릴 수도 없죠?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도 동물의 피를 흘려 가지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걸만 그런거지 걸만 뻥질한거지 속은 다 썩었는데 그걸 몰랐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모세 즉, 옛 사람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남의 물건을 탐내는 자마다 이미 도둑질한 자다. 이렇게 얘길 했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사실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쓰려고 그런게 아닙니다. 로마에 갈려고 그랬습니다. 갈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못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만약에 로마에 사도바울이 갔다면 로마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보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 편지를 쓰게 한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뭐 안될 때가 있죠? 일이 잘 안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되게 하는 거예요. 안되는 대로 내버려 두어야 되요. 그걸 할려고 하니까 고통받는 거야. 그냥 let it go, 하나님의 시간표는 쉽게 얘기해서 시간당 10 마일이에요. 우리는 80 마일로 갈려고 해요. 하나님은 10 마일 가는데 내가 80 마일로 가니까 하나님이 끄집어 낸단 말예요 요즘에. 뭐 그냥 인간이 계획을 세워놓고 난리도 치고. 가만 있음 되요 여러분. 아멘? 아무것도 안해도 되요. 할 일 없으면 주무세요. 그럼 되요. 그걸 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뭐가 있어요. 잠못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요즘에? 잠오는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참 이 로마서는, 하나 하나 음미하다 보면은, 저 벌써 세번째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는 들어도 또 들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럴거예요. 1 장 1 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여기 지금 종이라는 말을 합니다. 첫째, 종. 둘째는 성별이냐옵니다. 종이라는걸 영어로 servant 로 했지만은 사실 이게 slave 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피로 값주고 샀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2 장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본래는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하는 것은 뭔가하면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속이 마귀 자식이라고요. 그런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 은혜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 장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피로 값주고 샀어요. 노예라는거는 누군가 값을 주고 치른 사람에게는 그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거예요 지금은. 양자로 이제 입적된. 언제 자녀로 완전히 되냐하면 주님 오실 때 되요. 지금은 양자로 입적된 거예요. 마치 비교하자면 홀트 양자회를 통해서 한국에 고아가 미국에 스미스라는 사람 집으로 이미 양자로 서류가 싸인이 됐어요. 그런데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양자가 됐지만 아직 양자로 혜택을 못 누리죠?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살때 그때 완전히 자녀가 되는 100% 회복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땅에 사는 동안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때는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지극히 높혔어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많~이 한 사람, 낮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신다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여러번 얘기합니다. 우리교회에 나왔던 어떤 자매님인데, 그분을 찾을수가 없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분인데, 남편이 중국분이었는데, 그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얼마 안돼 수요일날 예배에 왔어요. 그분은 설교를 하면 막 울면서 들어요. 눈이 초롱 초롱 해가지고 그냥 울면서 들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따라와 가지고 한번은 멕시칸을 막 울면서 끌고 오는데 이분이 구원받고 싶어 한다고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데려와 앉았는데 이 멕시칸 청년이 울면서 막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 가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 분 동안을 내 양복 위에다가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려 가면서 나를 끌어 안고 울었어요. 길에서. 그 자매를 잊어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수요일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읽다가 보니 성령님이 이걸 목사님한테 드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그래서 내가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 그 말씀을 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려울때마다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겸손할 때 때가 되면 높히는 거예요. 주님도 밑에 지옥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끝까지 높은 겁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지만. 그래서 사도바울은 종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편지할 때마다 나는 꼭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한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란건 쉽게 말해서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종이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되요. 여기가 만약에 회사라면 막 돈 꿩다가 유명한 가수 데려오고 돈꿩다가 광고도 내고 건물도 멋있게 짓고 이렇게 하지만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맡겨 주신 것만큼만. 이게 종입니다 그렇죠? 또 요즘에 보면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죠? 그런데 종인 사람은 주님이 있으란 곳에 있어요. 주님이 있으란 곳에 아멘? 그래서 종인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기 자유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죄로부터는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유가 없어요. 이게 진짜 종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종이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십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바울 신학을 신학교에서 최고로 칩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 종들은 사도바울을 모범이 되는 모델 케이스로 따르는데 사도바울의 모델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이 높여 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잖아요.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가만히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닙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주님이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요.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요. 아니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가만히 있는데 좋잖아요? 그분 말만 들으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분 말만 잘들으면 절대 문제가 없어요. 죽을듯 죽을듯 하면서도 안 죽어요. 그게 사도바울이 뭐라했죠? 유명하지 않은것 같으나 유명하고 가난한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사람들이 볼때는 가난해 보여도 모든것을 가진 거예요. 참 보면 이게 종의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됐다. 성별, separate, 그런데 이게 unto 로 되어 있습니다. unto 로. 영어로 보면 성별된게 separater 인데 unto 로 되었어요. 그런데 separate from 이란게 있죠? 성별됐다는거, 보통 성별 그러면 어디서 꼬집어 내가지고 분리시켰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의 뜻은 분리만 시킨게 아니라 또 어디로 성별되서 붙었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뭔가하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죄있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붙었다 이런 얘기에요. 두번이죠? 한번은 세상으로부터 나올때 분리되고 그다음은 나와서 하나님께로 붙은 거예요. 성별이 딱 된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에요. 아 교회는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이런 사람만 모인게 교회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깨끗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말예요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두 사람 모세하고 다윗 보세요. 두 사람 다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죠?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죄인이란걸 깨달은 사람들을 들어 써요. 그럼 깃소리를 못하니까. 아무 소리 못할거 아녜요.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부르니까 깃소리 못하고 어딜 가도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였을때 그가 죄인이란걸 알았어요. 밤에 자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셔요.여러분 내 죄때문에 베개를 적셔 본적이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가 막혀 가지고 이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래서 베개를 적셔 본적 있어요? 네?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을 주님이 써요. 그렇지않은 사람을 썼다가는 고개를 바짝 듭니다. 절대 안씀니다. 내 모습을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 모습을 깨달아요. 여러분 에스겔 37 장 보면, 오늘도 여기 미국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을 모셔 가지고 설교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구덩이에 푹 빠져 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뼈 말예요. 마른뼈. 마른뼈가 뼈짝 말랐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외엔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이 에스겔 보고 살겠느냐 물어보면 살겠다 안살겠다 그래야 하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뭐 물어볼 때 목사님이 물으니까 목사님이 알잖아요 그러면 참 지혜로운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그러세요. 누가 물으면 당신이 아시잖아요. 그럼 아주 그냥 100 점. 괜히 뭐 잘못 얘기했다가 틀리는것보다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애요 에스겔이. 그래서 이 성별이라는 거는 뭐를 세상에서 하던 짓거리를 안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물론이고 하나님께로 딱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만 위해서 완전히 구분됐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별됐나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세상에서도 성별되고 이것은 구원 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것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다음에는 또 2차적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켰는가? 이것을 확신하고 결국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평생 그 일만 한다는 거죠.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된 자입니다. 이번에도 워싱턴에 갔을 때 멕시코 김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송목사님과 목사님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하면 교회만 오면 그냥 예배 끝나고 끌고 나가니까 누가 붙어 있겠냐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잘도 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뭔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종합상사 되지 맙시다. 종합상사 되 봐야 이문도 없고 망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잘하면 돼요.

하나만. 하나만 뭔가 특기가 있는 사람이 쓸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 저것 잘하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결국은 안돼요. 샘을 팔 때는 한 구멍만 파라는 말이 있죠? 하나만 하다 보면 다른건 곁길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전공 하나 하다 보면 부전공 하나 따라 오게 되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중남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그걸 하다 보면 이 교회에서 밥을 하는 사람도 축복이요 청소하는 사람도 축복이에요. 왜? 그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성별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종이 됐고 성별이 됐다가 성경에서 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 장 1 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또 나오죠? 디모데도 종이래 그랬어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그 다음에 디도서 1 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한 마디 한마디가 그냥 넘어가선 안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목사만이 종이 아닙니다?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죠. 왜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이 다 주의 종인데 직분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직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종이에요. 천국 가면 인정해 주죠? 디도서 1 장 1 절 **[하나님의 종이요]** 여긴 또 하나님의 종으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다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걸 마찬가지로 얘기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7 장 23 절 보겠습니다. 성별, 종에 대한 거와 관련되는 성경구절. 아 20 절부터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는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건가? 그게 부르심이죠? Calling, 콜링이라고 합니다. 목사 되는것만 콜링이 아닙니다. **[네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스럽게 될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참 아주 묘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종과 상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종과 주인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사실 인정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릴수도 있고 휴머니스트들은 아주 화를 낼 일인데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노예 해방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의 자손들을 종노릇 시키면서 뭔가 또 할일이 있는데

해방시키다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범죄가 들끓게 됐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옳다 틀렸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 보면 성경에 종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상전도 믿을수 있고 종도 믿을수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간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으니까. 그런데 종도 주안에서 부름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주님안에선 자유하다 이거죠? 그런데 자유인도 또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은 종이던지 자유인이던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나 그 안에선 자유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안에서는 종이다. 그 말씀에는 꼼짝을 못한다. 그분의 말씀이 성경 말씀아네요? 성경 말씀이 떨어지면 꼼짝 못하는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종입니다. 23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루고 산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값을 피로 치뤘으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려 가지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이른바 사람 비유 맞추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것은 사람이 싫어해도 하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 장 20 절 보겠습니다. 다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과 영이 우리에게 아니란걸 절대 잊어 버리면 안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도 우리에게 아니고 우리 자식도 우리에게 아니예요. 제가 자식 걱정을 좀 했더니 주님이 안에서 그래요. 네가 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솔직히 네가 사랑하는건 이기적이 아니냐? 네 자식이 못된 짓하고 그러면 네 체면이 손상되니까. 목사 체면이 손상되니까. 네가 기분 나쁘고 네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런거지? 사실 정말 너의 자녀를 사랑하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걱정하는게 정말 하나님이 걱정하는거 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체면이 손상되서 그러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해요. 그냥 주님께 다 돌려요. 주님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저의 어머니가 제가 교회 안다니고 20년 해맬때. 계속 술먹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그냥 밤 12시, 2, 3시에 들어가 문 열어 달라고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라는 얘기를 못들어 봤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은 뭘니까? 오래 참고, 요즘 애들 말예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으면서 사랑을 줄 때 아이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걸 조금 깨달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은 우리에게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할말이 없잖아요. 있으려면 있으면 되고 가려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르면 오는거고요, 그렇죠? 외치려면 외치면 되는 거고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회사 생활 하다가 주님 안에 들어 오니까 너무 편하게 회사 다닐 땐 맨날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뭘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 좀 할까?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야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14 장. 홍해가 닥 앞에 가로막혔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13 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 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호사밧왕 때 모압하고 암몬하고 세일산 세 민족이 쳐들어 왔죠? 그럴 때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했죠? 가만히 서서 찬송만 하라 그럼 내가 싸우겠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주님께서 싸워 주시는 겁니다. 복병을 보내 가지고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게 뭐예요? 염려하는게 뭐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릴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마음도 괴롭히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막 염려하는건데 그럴때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다.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요?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거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돌보실 것이다. 뭐가 다르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앞에는 홍해는 없잖아요?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정말 고민인데. 우리 선교사님처럼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한 동안 가실거 아녜요. 난 금방 꼬르륵 할텐데. 그것보다 나은거 아녜요? 그런데 염려거리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서서 구원하심을 보라 이 얘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돌보실 것이다.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죠? 똑같이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돌보신다는데 내가 돌보는게 더 힘든게 아녜요? 안달을 하는거야 안달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특히 집에서 보면 아내들이 더 조급하죠? 남편들은 좀 느긋하고. 느긋하게 좋은거예요 사실. 남편들이 느긋할 때 아내들은 가만히 있어요. 느긋하면 주님이 다 해주실텐데. 내가 설치다가 사람한테 찾아가서 도와 달라다가 완전히 mix-up 해버리는 거예요 mix-up.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라고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 많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눈으로 볼수 없고 귀로 들을수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본적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다들 잠을 못자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잠을 더 잘자요. 왜냐하면 잠을 잘자야 더 생각할게 아네요. 잠까지 못자면 그냥 헛갈려 가지고 우울증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염려 걱정이 진짜 염려할것이 있다고 되는게 아니더라. 이번에 필라델피아에 우리 누님을 찾아갔더니 그분은 우리가 볼때는 염려할게 하나도 없어요. 집 페이먼트 다했죠. 은퇴해 가지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 많죠. 애들 다 잘자랐죠. 그런데 그 분이 걱정할게 없는데 돈 걱정을 한대요. 우리 매부가 돈 많이 있다고 보여 주는데도 안 믿는거야. 이게 걱정이란게 진짜 있어서 걱정하는게 아니고 걱정이 되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두려움.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그거 보고 내가 깨달았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최고구나. 그러면 없어도 걱정안해. 말씀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걱정해. 있어도 걱정해. 그러니까 90% 이상이 되지도 않은걸 걱정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자 2 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를 통하여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분들입니다. 창조주가 여러분 한분 한분을 불렀어요. 불렀을 때는 그냥 부른게 아니라 뭔가 시킬려고 부른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로 처음에 안 시켜요. 조그만걸 주십니다. 조그만걸 순종해야죠? 그래야만 점점점 큰 것까지 순종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때문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1 년에 한번씩 영주권 연장하러 왔던 분, 그분이 날보고 뭐라그러냐하면 아 송복사님은 크게 하실 분이 왜 이렇게 조금 데리고 길거리 같은데나 나가 가지고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들에게 맨날 소리나 지르고 목이 쉬어 가지고 있냐 자기는 이해가 안간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큰 일 맡으셨어요? 그랬더니 아 나는 뭔가 큰 걸 해야 되기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기다린게 10 년이 넘었어. 내가 그랬죠. 전도사님 조그만 거에 순종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일에 쓰지 어떻게 처음부터 큰일 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큰일을 합니까? 크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요만한데 뭘 큰 일 합니까? 시키는 것만 하자고요. 나는 시켜서 한거라고.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주님의 형상 닮아 가려면 아직도 멀었고 죽을 때까지 나는 해야 된다. 왜? 주님의 형상을 닮는게 주님의 목표입니다. 아멘? 우리를 전도 보내는 것도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옛 사람이 보이고 갈 때마다 내 자신의 문제, 죄가 드러나. 죄가 있으면 전도를 못하잖아요. 마음에 가책이 와 가지고. 그렇기때문에 회개 안할 수가 없고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일을 시키는 것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안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 주신겁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고난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피도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고 무슨 동물이 되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 보고 개가 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벌레가 됐어요. 여러분 다같이 시편 22 편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됐나. 시편 22 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하신 말들을 전부 다 여기 집어 넣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미리 성령께서 여기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벌레처럼 됐습니다. 주님의 몸은 벌겨 벗겨지고 벌레처럼 됐어요. 피투성이가 되가지고 큰 벌레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12 절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 쌓나이다.]** 그냥 로마 군병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때 권력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황소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짓고 울부짖는 사자같나이다.] 십자가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고 그런게 마치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처럼 보였다가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14 절 보면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 녹았나이다.]** 주님의 심장이 완전 녹아 버렸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철렁하고 가슴이 막 싸아하고 절망 속에 있어 본적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런걸 많이 경험해봤는데 그때 시편을 많이 읽었어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정말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15 절 **[내 기력이 질그릇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잇들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탈수되가지고 혀가 잇들에 딱 붙어가지고 숨이 막혔죠. 주님이 숨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갈증나는데 물 먹먹으면 입이 그냥 말라 버리면 어떻게 되요? 아주 불편하죠? 전 아마 제가 입을 벌리고 자는것 같애요. 입 벌리고

자시는 분들 있죠? 주무시는 분들? 그런분들은 아마 갈증을 많이 느낄 거예요. 입속이 바짝 말라 버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잠을 너무 곤히 자서. 주님의 혀는 잇들에 붙었고.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속에 두셨나이다.]** 16 절 보세요. **[개들이 에워싸고]** 거기 개들이 있었겠어요? 멕시코도 아닌데. 이거는 이방 죄인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죄인들. 주님의 눈에는 모습이 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 장에 개들과 술객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밖에 있다고 나오죠?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요. 왜 성경에 개가 나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사야 56 장에.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 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주님은 이땅에 사도로 오신 거예요. 주님도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가 땅에서 주님과 같은 고난을 받는것은, 받은 만큼, 피하는게 아니라 받는 만큼 결국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인정 받고 우리에게도 상을 주십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어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자들로부터 부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시편 2 편 보세요. 육신으로 오셨던 주님에 대한 그 말씀과 말씀이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실수를 해요. 시편 2 편 6 절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게 뭔가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도 인자로 오서 가지고 시온산에 서십니다. 시온산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감람산에 그 발이 내려앉죠? 그리고 그때부터 왕이 되셔가지고 칙령을 선포해요. 그 칙령이 마태복음 5,6,7 장에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오서 가지고 다스리는 왕국의 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왕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이예요. 모든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우리 사도행전 2 장 29 절 보겠습니다. 주님도 이땅에 계실때는 초림했을때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 33 년 동안을 개나 고양이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 뭐 우리 아들도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할거고 쓰다듬어 줄거고 발로 찰거고 그렇잖아요? 이건 말도 못하고. 얼마나 그냥 답답하겠어요 사람으로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뭐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했다간 얻어 맞을텐데. 참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 해야되요. 우리보고 그렇게 되라 하진 않았습시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야사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우리 안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다윗도 선지자였습니다.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육신이 후손이죠?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것을 알고]** 다윗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왕 아니에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습시다. 그래서 다윗의 위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한다고 했어요. 다윗은 죽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로 그 자리에 앞으로 앉을 거라고 했어요. 31절 **[그가 미리 앞을 내다 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지옥까지 가신거죠? **[또 주의 육신도]** 육신이 무덤에 있었죠? **[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주님이 죽으실 때 영을 아버지에게 의탁했고 혼은 지옥에 가셨고 몸은 무덤에 갔는데 썩지 않았습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썩습시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하늘에 갑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집이 분명히 알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것이라고 하더라.]** 예수라는 사람이 종의 형태로 온 사람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것을 다 이루시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뭐니까?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의 직분이 뭐니까? 첫째는 선지자,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자이죠?. 둘째는 제사장이죠? 셋째는 왕입니다. 이땅에 계실때는 선지자로 계셨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가서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고백할때마다 그 피로 씻어주는 대제사장. 이제 때가 되면 왕으로 이땅에 다시 오십습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건 잘 몰라요. 그럼으로 주님께서서는 다윗,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는데 앞으로 이땅에 오실때는 천년동안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 그때 지금 이땅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같은 사람은 결혼도 안하고 그렇게 살았죠. 세상에 남자치고 장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딴어요. 저도 스무 몇살되니까 결혼하고 싶어 죽겠던데. 그만큼 소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것(독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으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는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입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지어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됩니다. 은혜라는건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평이 나와요. 그다음에 평강은 뭘니까? 평강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읊이 말이죠. 아들과 딸들이 죄를 질까봐 미리 겁을 먹고 번제를 미리 드리고 그랬어요. 계속 불안했거든요. 아이들 볼 때 불안한 거예요. 아이들 볼때 불안할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간수합니다. 아멘? 막 불안하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 하니까 어떡해요. 그게 그대로 임한거예요. 이 평강이 없으면 두려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강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세상에서 평화는 사람끼리 화합해서 좀 잘살아보자. 화합해서 잘 좀 지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평강은 하나님게로부터 내려온거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봐서 죽겠다 그럴때 죽지 않으리라 그랬죠? 그럴때 그자리를 여호와 살롬이라 했어요. 그게 뭐냐하면 이 평강은 뭔가하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입니다. 아멘? 그것만 된다면 다른거 걱정할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땅에서 뭐가 좀 잘되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1년 먹을거 좀 있고 애들도 문제 안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할때 오는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죽음을 초월한 평강. 이것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때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름 다 불러 가면서. 그게 최고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죠? 평강만 있으면요 걱정할게 없어요. 평강이 없으니까 돈도 못버는 거죠.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안되는 거죠. 평강이 있으면 느긋하게 볼 수있고 여러가지 모든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